

'기후위기사계'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 기상청-대전광역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을 위해 기후위기사계 공동 설치
-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5년 321일... 지구온난화 극복 위한 국민 소통 기반 구축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함께 9월 5일(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사계(Climate Clock)를 설치하였다.

이번 기후위기사계 설치에 지난해 기상청의 대전 이전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한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한 시책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홍보 정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기후위기사계가 설치된 한밭수목원은 다양한 식물 종과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식물의 재배와 연구가 가능한 식물원이 조성되어있으며, 기온을 낮추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등 도시 속 거대한 허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숲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과의 소통에 적합한 곳이기에 설치 장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후위기사계는 전 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고안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2021)에 근거하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다. 2023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1.5℃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 5년 321일이다.

이번 기후위기사계 설치에 지구 온도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청은 문화예술을 통해 기후위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달콤기후 감성 버스킹)을 9월 9일(토) 저녁 8시에 대전 엑스포다리에서 진행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인식 개선과 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후위기사계 설치 개요 및 설치 사례
 2. 기후위기사계 설치 기념식 개최 사진
 3. 국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달콤기후 감성 버스킹) 소개

담당 부서 <총괄>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책임자	과 장	김정식 (042-481-7420)
		담당자	사무관	박영주 (042-481-7416)
<공동>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근 (042-270-5400)
		담당자	사무관	박명호 (042-270-5420)

□ 기후위기시계란?

- (설치운동 개요)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는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예술가인 ‘간 골란’ (Gan Golan)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와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고안한 프로젝트
- (구성)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C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디지털시계 / 1.5°C 상승 Deadline : 5년 321일 (’23. 9. 5.기준)
- (자료출처)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정보 반영
* 사립재단인 Stiftung Mercator(비영리단체)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가 공동으로 설립
- (1.5도 상승시 영향)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 (기상) 중위도 극한 고온 3.0°C 상승, 고위도 극한 고온 4.5°C 상승
 - (해양) 해수면고도 0.26~0.77m 상승, 산호초 70~90% 위험, 어획량 150만 톤 감소
 - (생태계)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이상 상실

□ 설치사례

- (국외) 독일 베를린(’19), 미국 뉴욕(’20), 영국 글래스고(’21) 등
- (국내) 인천광역시청(’23), 창원용지호수공원(’23), 부산시민공원(’22) 등

<p>국외</p>	 <p>미국 뉴욕 유니온 스퀘어</p>	 <p>독일 베를린 기후연구소 MCC</p>
<p>국내</p>	 <p>부산 시민공원</p>	 <p>인천광역시청</p>



기후위기시계 설치 제막식(대전 한밭수목원)

(오른쪽 3번째 장동언 기상청 차장, 왼쪽 3번째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기후위기시계

기후 변화 과학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감성 버스킹

달콤기후 버스킹

2023. 9. 9. 토 | 20:00 ~ 21:00

대전 엑스포다리 버스킹존2

아티스트 | 9297밴드



달콤기후 감성 버스킹 포스터